

숙수념 공간에서의 ‘틈’과 홍길주의 념(念)*

하지영**

<차례>

1. 서론
2. 숙수념의 운영원리와 공간적 특질
3. ‘틈’에 나타난 홍길주의 념(念)
4. 결론

<국문초록>

홍길주의 『숙수념』에서의 공간은 통일된 체계 안에 질서 있게 배치되지 않으며, 특히 현실과의 유착 정도는 개별공간에 따라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이질적인 공간들 사이를 가르는 개념으로 ‘틈’, ‘사이’, ‘그림자’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들 개념은 애초에 홍길주가 『숙수념』을 기획하고, 『숙수념』 내의 전체 공간을 운영하는 원리로서 역할 하기도 한다. 일상 공간의 경우, 현실적인 가치를 재현하고, 치인への 욕망이 반영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환상 공간의 경우는 일상의 규범이 해체되며, 홍길주의 사유가 형상화되어, 무한한 변주와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일상과 비일상, 혹은 현실과 환상이라는 이질적인 공간들의 공존은 『숙수념』의 성격을 규정짓는 특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성격의 두 공간은 한 세계 안에서 공존하면서 동시에 분절되어 또 다른 틈, 즉 경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명시하지는 않지만, 틈은 숙수념의 공간을 가로지르며 존재하며,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틈’ 개념에 드러난 홍길주의 사유는 숙수념의 ‘념(念)’의 성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남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틈’을 파악한 홍길주는, 진과 허와의 경계를 분명하게 긋지 않으며, 나아가 허가 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홍길주의

* 본 논문은 서울인문장학금의 지원을 받았음을 밝힌다.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이러한 틈과, 진과 허에 대한 역설은, 19세기에 견고화되던 이데올로기 틈 사이에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 내었으며 열린 세계관으로 향하는”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홍길주, 숙수념, 틈, 환상, 19세기

1. 서론

일명 의원기(意園記)¹⁾ 류 작품군에 묘사된 공간은, 가상의 세계라는 점에서 무릉도원이나 선계 등의 유토피아 형상과, 큰 맥을 함께 하고 있다. 작가는 자기가 거주하고 싶은 공간을 구체적으로 배열하고, 그 안에서의 삶을 상상한다. 하지만 이들 꿈은 현실과 유착된 꿈이기에 유토피아와는 달리 작가의 상상력이 무한대로 확장되기는 무리이다. 이용휴와 정약용²⁾이 꿈꾸던 거주공간은 소박하지만, 실현가능한 은자(隱者)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애초에 실현 가능성을 축소하거나 배제하고 철저히 자신의 상상으로 창출된 것임을 전제한다면, 이들 공간의 형상에서 작가의 욕망, 사유는 유토피아 형상보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표출된다. 작가가 가공하는 일상 세계는 자신을 중심으로 경영되는 공간이며, 이에 작가는 조물주에 비견되는 창조성을 지니게 된다. 작가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건물과 그에 사는 인물, 심지어 주위 자연까지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항해(沆漚) 홍길주(洪吉周:1786-1841)의 『숙수념(孰遂念)』은 작가의 자유로운 사유가 어떻게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내는지를 보여주는 작품

1) 안대회, 「18, 19세기의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 진단학보, 97, 2004.

2) 이용휴 <九曲幽居記>, 정약용 <題黃裳幽人帖>, 안대회 윗글 참조.

이다. '누가 내 생각을 이루어줄까?'라는 제목처럼, 『숙수념』은 홍길주가 꿈꾸는 거주 공간의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 공간배치는 『숙수념』의 제일 앞부분인 「원거념(爰居念)」에서 시도되며 이것은 다른 념들을 총괄 기획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가택 공간 내의 친지와 빈객에게, 경영 업무를 분담하는 각수념(各授念), 인근 지역 백성을 구휼하는 구체적 방법이 제시된 삼사념(三四念), 자연공간을 유람하는 것을 비롯하여 유희하는 여러 모습이 그려진 「식오념(式敖念)」을 통해, 『숙수념』 공간의 역할의 의미는 좀 더 구체화된다. 이처럼 공간은 『숙수념』의 전반적인 내용을 지배하고 있기에, 『숙수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새로운 지식인의 삶의 지표를 그려 보이는 상상의 공간³⁾, 사대부의 이상적인 지적체계의 공간⁴⁾ 조선 후기 경화세족의 복거(卜居)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공간이라는⁵⁾ 등의 연구결과를 도출해낸 바 있다. 각각은 『숙수념』을 이해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었으나,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논하는 데 있어 합일된 지점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이는 우선 『숙수념』의 공간이 가지는 문 제적 국면, 즉, 『숙수념』의 공간들은 통일된 체계 안에 질서 있게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현실과의 유착 정도는 개별공간에 따라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⁶⁾ 범박하게 말하자면 일상적인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그 공간에 거주하는 홍길주의 모습도 다양하게 변주, 재생산 되고 있다. 주거공간

3) 김철범, 「홍길주 <숙수념>의 세계」, 『열상고전연구회』 17, 2003.

4) 최원경, 「숙수념 그 공간의 미학」, 『한문학보』 11집, 2004.

5) 최식, 「홍길주의 복거와 숙수념」, 『동방한문학』 28, 2005.

6) 최근 박무영은 숙수념의 세계가 현실계와 환상계가 서로 포개져 있는 공간임을 밝혔다. 「『숙수념』의 공간 설계와 문학적 사유」, 『동방한문학』 33집, 2007.

을 경영하고, 빈객과 인근주민을 대하는 주인의 모습과, 자유로이 상상의 공간을 유영하는 항해자의 모습이 이질감을 유지하면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지칭도 ‘주인(主人)’, ‘주인옹(主人翁)’, ‘항해자(沆漚子)’, ‘항해수(沆漚叟)’, ‘태허선생(太虛先生)’으로 달리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 그 본연의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공존형태는 『숙수념』의 전체적 의미를 간파하기 힘든 장치 역할을 한다. 즉, 『숙수념』은 하나의 책이면서도 그 안에 묘사하는 공간, 그리고 그에 따른 사유, 문체가 끊임없이 변주되어, 일관된 체계의 성격이 결여되어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는 어지럽고 산만하게 나열된 상상 공간 내에서, 홍길주의 사유, 욕망의 끈을 놓쳐버리곤 한다. 이에 본고는 일상 공간, 그리고 일상적 공간의 규범을 따르지 않거나 해체하는 공간의 관련 양상과 각각의 의미, 그리고 그 공간들이 운용되는 원리를 추론함으로써 『숙수념』을 총괄 기획한 홍길주의 사유를 읽어내는 한 단서로 삼고자 한다.

2. 숙수념의 운영원리와 공간적 특징

1) ‘틈’- 사이공간에 대한 인식

『숙수념』의 공간은 그 의미와 미감을 표출하는 짧은 서문과, 그리고 상량문, 기문, 명(銘), 혹은 한시 등을 동반한다. 공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가택 공간 및 백성을 구휼하고 학자를 기르는 동쪽 담장 밖,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택 뒤를 병풍처럼 둘러싼 자연 공간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숙수념』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십육관(十六觀) <숙수념>에서 하나의 공간이 더 추가된

다. 그것은 숙수념이라는 세계 외부에 존재하는 바로 현실 공간, 즉 『숙수념』의 저자로서의 홍길주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숙수념의 운행 원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항해자가 어려서 막 문자를 배울 때, 뜬금없이 엉뚱하게 말하기를 “나는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하였다. 어떤 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 “나의 숙수념에 있지요.”라고 엉뚱하게 답하였다. 또 엉뚱하게 말하길 “나는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는데, 책 안에는 이런저런 말이 있지요.”고 하였다. 누가 그 말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 또 “내 숙수념에 있지요.”라고 엉뚱하게 답하였다. 또 숙수념이 어디냐고 물으면 “나의 별장이지요.”고 답하였다. 거기가 어디냐고 하면 들창과 시렁 사이 작은 틈을 가리키며 “이곳으로 들어가면 이를 수 있지요.”라고 하니, 듣는 자들이 모두 크게 웃었다. 7)

홍길주는 『숙수념』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창조한 세계 바깥으로 나와 그 공간의 의미를 다시금 조망한다. 그는 이러한 가상공간에 대하여 어릴 때부터 구상해왔음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작은 틈[小隙]”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숙수념의 세계로 인도하는 길이자, 현실세계와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이 틈은 가상과 현실, 두 세계의 단절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그 공존을 뜻하는 것이다. 비록 홍길주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은 작은 틈을 경계로 존재하며, 또 두 공간을 왕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숙수념은 애초부터 ‘틈 안’에 위치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이를 읽는 것은 ‘틈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로 형상화된다. 이에 ‘공간’과 ‘틈’은

7) <孰遂念.孰遂念>, 沆瀣子孩提時, 始學文字, 輒妄言曰 “吾藏有某寶” 或問何在, 輒妄答曰, “在吾孰遂念” 又妄言, “吾藏有某書, 書中有某語” 或問其何在, 又妄答曰, “在吾孰遂念.” 又問孰遂念何處, 答曰, “吾別墅也” 何在? 輒妄指牖戶几度之間有小隙者曰, “由此入可至.” 聞者皆大笑.

『숙수념』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역할함이 분명하다. 이 같은 틈의 이미지는 여기에서 뿐 아니라 숙수념 내부에도 반복해서 등장하여 틈 안에 다시 틈을 생성하게 된다.

한 나무꾼이 산에 들어갔다가 수 길이 되는 석벽을 만났는데 정중앙에 마치 도끼로 쪼개놓은 듯 세로로 된 틈이 있었다. 두 돌은 서로 붙어있는 것 같아 그 틈이 겨우 손바닥 하나만 용납하였는데 별안간 인도하는 자가 나타나 마침내 그 속으로 들어갔다. 숲과 계곡이 빼어나게 아름다웠고, 붉은 누대가 있었는데, 선선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그곳을 나오고 나자 틈이 전처럼 합쳐졌다. 호사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인부를 보아서 큰 도끼와 긴 가래로 그 벽을 부수어 보았지만 허무하게 끊어진 산록만 있을 뿐이었다.... (중략)...지금 실옥 사이와 창과 벽의 틈은 벌레 날개도 용납할 수 없는데, 그 창문을 가르고 그 벽을 무너뜨린다면 허무하겠지만, 만약 그 틈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는 자가 있다면 산골과 누대 선인의 거처를 만나지 못할지 어찌 알겠는가? 8)

우연히 산을 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세계, 유토피아를 만나는 이야기구조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중심 화소가 바로 ‘선계’가 아닌 ‘틈’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홍길주는 나무꾼이 발견한 틈이 비단 이야기 속의 석벽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거주 공간 내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일상세계 내에서도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홍길주의 사고는 분명 독특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일상세계, 즉, 인식 가능하고, 기표

8) <爰居念太虛府記>, 樵之人, 入山遇石壁數仞, 正中豎罅如斧剖. 如兩石相麗, 其罅堇容側掌, 瞥然若有導之者, 遂入其中. 山谿秀絕, 有樓闕丹綵, 仙人居之. 既出罅合如故. 好事者聞之, 聚人夫, 以大鉞脩鑿, 破其壁眦之, 荒荒然斷麓而已....(중략)...今室屋之間, 牖壁之隙, 不能容蟲翼, 決其牖毀其壁, 則空空也. 苟有由其隙入者, 安知不遇山谿樓闕仙人之居也?

화되는 세계가 완전무결하며, 그것만이 실존한다는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인식,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또 다른 공간이 존재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홍길주의 생각이다. 이러한 '틈'의 의미는 '사이(際)', '그림자(影)'라는 용어로도 설명된다. <청부정기(淸芙蓉亭記)>에서 홍길주는 청부정의 아름다움이 물이나, 연꽃, 정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자의 밖, 연꽃의 위, 허공의 사이[虛空之際]에 있다고 하였다. 물론 여기서 '제(際)'는 '틈'과 그 뜻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것 역시 인식 가능한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을 띄고 있다고 하겠다. 더구나 '제(際)'는 박지원, 박제가를 비롯한 조선 후기 문사들의 글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개념이기에 더욱 주목을 요한다. 다음의 인용문은 '그림자'를 통해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공간을 표현한 것이다.

어떤 객이 왕옥산에 들어가 바위 계곡 사이를 지나던 중에, 생황과 경쇠, 학 울음소리를 들었다. 동쪽에서 들리기에, 그 소리를 찾아 동쪽으로 갔는데, 미처 수백 보를 가지도 전에 그 소리가 서쪽에서도 들리더니 갑자기 남쪽에서, 또 갑자기 북쪽에서도 들렸다. 크게 경이롭게 생각했지만 찾지 못해서, 포기하고 몇 리 밖을 나가니, 소리가 점차 들리지 않아, 마침내 잊어버렸다. 다음날 어떤 곳에 도착했는데, 오래된 절이 있었다. 당에는 생황과 경쇠가 저절로 울리고 뜰에 학이 모여 울고 있었는데, 문에 들어가니 들리지 않았고, 그 뜰에 나아간 이후에 성대하게 기에 가득하였다. 돌아오는 길은 모두 올 때와 크게 달라 여러 번 돌아 돈 후에는 더욱 헛갈렸다. (나에게 묻기를) 다시 그 집을 방문하고자 하나 그럴 수 없었고 꿈이라 생각하여도 깨어나지 않으니 그대는 이곳이 어딘지 아는가? 나는 비록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또 여기와 비슷한 곳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곳의 그림자는 안다. 오노원의 동담과 쌍폭포는 이곳의 그림자이다. 북산은 옥산과 만 리 떨어져 있고 동담에는

학과 생황과 경쇠가 없고 소송정은 새로 지어 고사와 크게 다르다. 그 길을 보면 또 싶게 분별할 수 있으니 사람들이 여러 번 출입하여도 헛갈리지 않는 데, 왜 이곳의 그림자라고 하는가? 바로 이 때문에 이곳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니 같다면 그림자가 아니다.⁹⁾

왕옥산에서 객이 목격하고, 다시 찾으려 하나 찾지 못한 풍경은 바로 선계이다. 이곳이 어디냐는 객의 질문에, 다소 엉뚱하게도 흥길주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북산이 바로 그곳의 그림자라고 답한다. 여기서도 선계 대신에 “그림자(影)”가 중심화소로 위치한다. 비록 북산에는 객이 접한 학이나 경쇠 소리 같은 선물(仙物)이 없고, 길도 분명한 현실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왕옥산과 다르기에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림자(影)”는 비슷하면서도 같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현실과 그 현실 이면에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은유로도 읽힌다. 두 공간은 실체와 그림자 처럼 늘 공존하나, 후자의 경우 은폐되기에 가끔씩이나마 우연하게, 혹은 남다른 지각력을 가진 자에게 의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틈’, ‘사이’, ‘그림자’는 현실, 인식 가능한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또 다른 공간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의미망을 형성한다. 이들 개념은 애초에 흥길주가 『숙수념』을 기획하고, 『숙수념』 내의 전체 공간을 운영하는 원리로서 역할 한다. 『숙수념』의 독자는, 현실과 가상의 이중 체계 사이에 존재하는 ‘틈’을

9) <爰居念巢松亭記> 客有入王屋之山, 行岩谷間, 聞有笙磬鳴鶴之聲. 起於東, 尋其聲而東, 未數百步, 其聲又在西, 俄而南, 又俄而北, 大驚異之而莫之得, 捨而之數里外, 聲漸不聞, 遂忘之. 明日, 至一所, 有屋宇若古寺觀者 堂有笙磬皆自鳴, 庭鶴群唳, 然至入門不聞, 造其庭而后, 裂裂然盈乎耳. 將還路徑, 皆大異來時, 數折而后益眩惑. 欲復訪其屋而不可得, 寘其爲夢而亦不醒 子知此之爲何地耶? 吾雖不知此地之所在亦彷彿乎, 知此地之影也. 吾老園東潭雙瀑, 此地之影也. 北山距王屋萬里, 東潭無鶴及笙磬, 巢松亭新築, 大不類古寺, 觀其路徑又甚易辨, 人皆屢出入無惑, 奚以謂之此地之影也? 曰是故謂之此地之影也, 若同則非影也.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2) 이질적 공간의 공존

(1) 治人에의 욕망이 실현되는 공간

<원거념(爰居念)>의 앞부분에서 홍길주는 공간을 배치하기 전에,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거처하는 곳이 맑지 않으면 뜻이 넓혀지지 못하고 보이는 곳이 통하지 않으면 정신이 왕성해지지 못한다. 하물며 장차 군장(群長)을 모이게 하고 보 관함을 두텁게 하여 나의 천당을 크게 비호하고 사사로움으로 나를 기르지 않는 데에 있어서라. 갑 원거념을 짓는다. 10)

숙수념은 사사로운 공간이 아니라, 여러 군장과 함께 어울리는, 그리하여 천당(天黨)¹¹⁾을 비호하는 곳으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가 기획한 숙수념의 공간은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집단 공동체가 삶을 영위하는 장(場)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홍길주는 가택 안에서는 친지, 빈객, 시종들을, 가택 밖에는 인근 친지, 백성, 도사, 승려들을 배치 시켰다. 정확한 인원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각수념>에서 각각 업무를 맡은 직장(職長)의 인원 수 만해도 36명가량 되며 (여기서 노예와 공장 수십 명 추가되며 담우(談友)와 문우(文友)의 수는 고정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집을 둘러싼 오노원이 사방 10리라고 하니, 그 규모의 거대

10) <爰居念> 居不爽, 志不廣, 觀不敞, 神不旺. 況將集群長. 厚儲藏, 大庇我天黨, 而不以私吾養. 述甲爰居念.

11) 여기서 ‘천당(天黨)’은 용례가 많이 잡히는 단어는 아니며, 그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문맥상 친족의 의미로 읽히나, 다른 문헌에서는 주로 하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확인된다.

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 그는 가족, 친지, 빈객을 아우르는 대규모의 돈회, 가회를 비롯한 여러 모임을 형성하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용수원(用壽院)’, ‘삼재원(三再院)’에 담당자를 두어 주위 가난한 백성을 구휼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하였다. 범중엄(范仲淹)의 의장(義莊)제도를 모의했다고 <삼재원기>에서 밝힌 것처럼, 홍길주의 이러한 공간 운영은 개인을 벗어나 공동체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치인(治人)에의 욕망이 다분히 반영된 것이다. 여기서 숙수님의 여러 공간에 첨부된 글 중 가장 앞에 놓인, 유가각(柔嘉閣)의 상량문(上樑文)을 주목해보자. 홍길주는 “성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가정에 본보기가 되는 것부터 하며 군자가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내외를 분별하는 것부터 먼저 한다.¹²⁾”라고 하여 내실이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집을 건축하는 것과 치국(治國)을 동일한 위치에서 논하고 있는 셈이다. 단순한 비유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면, 이처럼 국가 경영을 연상하게 하는 부분이 자주 눈에 띈다. 예컨대 <각수님>에서는 비록 국가의 제도를 참람하게 따라할 수는 없지만, 가택 내에 예와, 법, 재산, 서적, 기록 등을 관장하는 관리를 배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여기서 기록을 맡은 자 10명을 두어 주인의 언동과 대화, 집안의 모든 일들까지 기록하게 한 것은, 승정원주서(承政院注書)의 직책을 연상하게 한다.

홍길주는 이러한 숙수님 경영이 나아가 국가, 천하 경영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왜 그것이 구현되지 않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직접적으로 토로 하기도 한다.

12) <爰居念. 柔嘉閣上樑文> 聖人治國, 爰自刑家, 君子爲宮, 必先辨內.

오호라!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택하고 법을 사용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면, 그 수명이 어찌 억조에 그칠 뿐이겠는가! 어찌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 용수원에 그치겠는가!¹³⁾

이와 같은 탄식은 삼사념(三四念)의 <직기명(織機銘)>, <정통주(定痛珠)>와 같은 글에서도 자주 발견되는데, 나아가 홍길주의 재능과 꿈이 현실에서는 발현되지 못한다는 한탄으로까지 읽힌다. 최근 김명호¹⁴⁾에 의해 <숙수념행(孰遂念行)>이 소개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숙수념』의 성격을 짐작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고 하겠다.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은 <백설세모행(白雪歲暮行)>으로 박규수가 시를 짓고 난 뒤에 홍길주의 『숙수념』을 읽고 감동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제목을 '숙수념행'이라고 고친 것이라고 한다. 이에 『숙수념』과의 연관 관계가 크게 긴밀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에서 반복되고 있는 '회재불우'라는 시상은 『숙수념』과 상통되는 바가 분명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숙수념은 분명 사대부로서의 홍길주의 이상 공간을 재현하는 장으로서 역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실현가능성이 부재하는 허망한 꿈만은 아니다. 『숙수념』 계관(誠觀)에서 홍길주는 독자에게 숙수념의 경영을 공허하게만 여기지 말라고 경계한 바가 있다. 실제로도 홍길주가 배치한 공간과 그에 첨부되는 규정은 단순한 공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치밀한 모습을 띠고 있다. 특히 돈회와 가회 모임에 대한 규정은 매우 세세하게 조목화되어 있어, 이러한 것이 홍길주 집안 모임에서 실제로도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 이처럼 숙수념의 공간은 홍길주가 꿈꾸었던 현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했을 현실과

13) <爰居念.用壽院記> 嗚呼! 以是道而擇人而用法, 以是道而爲天下國家, 其爲壽, 奚啻億兆止哉! 胡爲其不能而止于一院也.

14) 김명호, 『박규수의 <孰遂念行>에 대하여』, 한국한문학회연구40집, 2007.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다.

(2) 일상의 규범이 해체되는 공간

그러나 숙수념 내에는 이상과 같은 결론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게 하는 공간의 모습도 발견된다. 가택 내에서도 각건당(角巾堂), 남일원(南一院), 표룡각(縹纒閣), 소요관(逍遙館) 등에서는 도교적 상상력이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어, 앞서의 공간과 다른 색채를 띠고 있다. 또 집 뒷산에 죽림도관(竹林道觀)에서는 단약을 만들고 비승의 기술을 익히는 도사의 모습이, 태허부(太虛府)와 소송정(巢松亭)은 닿을 듯 닿을 수 없는 선계의 형상이, 운수루(雲水樓)는 몽롱하게 변모하는 세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것 역시 홍길주가 직접적으로 신념하거나 욕망하는 공간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으나, 일상의 규범마저도 해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고찰이 요청된다.

연천 선생이 일찍이 말하길, “항해자의 글은 웅장한 건축과 빼어난 기둥, 변화무쌍한 구름과 파도와 같아 청묘(淸廟), 명당(明堂)이라 하면 고원함이 너무 지나치고 현포(縣圃), 요대(瑤臺)라 하면 너무 치밀하게 같았다.”고 하였다... 객중에 해외에 낯선 곳에 간 자가 있었는데, 공동(空同), 완위(宛委)의 도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었다. 그 사람이 말하길, “내가 일찍이 그대의 나라를 보았을 때 상서구름과 무지개 노을이 서로 비쳐 일어나고 영롱하고 찬란한 오체가 모두 구비되어 왕왕 용과 봉황 제비와 금수와 서옥의 형상을 한 것이 나타나 그 기운이 하늘을 바로 꿰뚫었습니다. 멀리 잘 내다보는 이를 시켜 만여 리를 거울처럼 환히 관찰하게 하였는데 그 아래에 아름다운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세의 건축이라 한다면 허공 가운데서 높이 솟아 거의 땅에 기반하고 있음을 생각지 못하게 하였으며, 인세의 건축이 아니라 한다면 그 같고 조탁한 것이 또 천하의 여러 장인의 교묘한 솜씨를 다하였으니

그대는 그것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객은 ‘아마도 이 누각인 듯하다.’라고 생각하여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길 “장서의 건물은 천하에 많지요. 여기보다 권질이 많고 여기보다 상자와 축이 풍부한 곳은 또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어찌 여기만이 이러한 기운이 있단 말이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겠습니까?”라 하였다.¹⁵⁾

홍길주의 서적을 보관한 누각, ‘표룡각’에서는 홍길주의 사유, 문장이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홍석주는 홍길주의 문장이 고원하면서도 치밀한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평하였는데, 이는 그의 서각인 표룡각의 모습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리하여 중국의 도사들에게까지 그 건물의 기운이 포착된다. 그에 따르면 우뚝하여 하늘을 찌르는 듯한 것은 천상의 공간이면서도, 교묘하게 잘 꾸미어놓은 것은 인세의 공간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표룡각은 그야말로 현실과 가상이라는 두 체제가 공존하는 숙수념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의 모습이 홍길주가 욕망하는 이상적 세계라기보다는, 자신의 문장이 무대화된 것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살펴보았던 <숙수념>에서의 틈안 공간 역시 이러한 맥락 하에 이해 가능하다. 숙수념은 누군가가 발견해주길 원하는 보물과 말들이 숨겨져 있는 공간이다. 이는 홍길주가 꿈꾸는 세계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

15) <爰居念縹緲閣記> 淵泉先生嘗曰：“沈瀛子之文，如傑構修棟，雲譎波詭，以謂清廟明堂，則縹緲太過，以謂縣圃瑤臺，則礪砥太密。”沈瀛子以爲不敢當也... 客有適海外異方者，逢空同宛委之士而談焉。其人曰：“吾嘗望見子之邦，有靄雲虹霞相暎而起，瓏璫玲瓏五采畢具，往往作龍虯鸞鷲錦，綉瓊璜之狀者。其氣直貫霄。使善觀遠者，以萬餘里鏡照之，見其下有麗宇。將謂是人世之築，則縹緲乎虛空之半，殆不意其礎乎地也。將謂非人世之築，則其礪砥斲雕，又極天下衆匠之巧，子之知乎？”客反復而扣之：“疑其爲是閣也”，遂告以槩。其人曰：“藏書之屋，天下多矣。其卷帙之富於是，裝軸之奢於是，又不知有幾所也。奚獨于茲而有是氣？是必其人有異乎？”

해본다면 그의 사유가 보물과 말이라는 형태로 집약되어있는 공간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사유의 형상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속수님의 공간은 고정된 현실적 형태가 아닌 활물(活物)로서의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다.

누대는 멀리 보이는 것을 좋다고 여기는데, 향해자의 건축물만은 모두 그렇지 않다. 무릇 양쪽 못과 강과 시내의 곁에 세운 것들은 모두 날아오르는 듯하지만, 그곳에 올라 앉아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단지 물 속 비친 아름다운 경치일 뿐이다. 그 오고가는 길도 아울러 숨겨져 마치 왕복하는 자가 없는 듯하다. 이는 하늘이 경관을 베풀 적에 세상 바깥으로 초연하여 스스로 하나의 별천지를 이루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조화가 만물에 펼쳐놓을 적에 순동(純同)의 투식에 빠지지 않고 일부러 한 부분을 무너뜨리니, 운수루의 서남 쪽에서 보인다. 흐릿하게 안개가 일어나고 이리저리 비단이 교차하여, 마치 성과 대궐과 궁과 전당이 층층이 겹쳐져 이어지는 듯하자, 혹자는 “옛 제왕의 도읍지라.” 말한다. 또 검푸른 산등성이가 중첩되어 내달리는 듯 엮여지는 듯, 바위 계곡과 숲, 산굴이 열키설키 뻑뻑하자, 혹자는 “은둔한 도인의 거처라.” 말한다. 또 잡초가 무성하여 황무지인 듯, 공허하게 광야 같고, 바람소리 슬프게 흘러가고, 기러기 소리 애처로이 맴돌자, 혹자는 “옛 전쟁터라” 한다. 그러나 그 곳이 어디인지 어느 시대의 누구의 사람의 유적인지 하나도 알지 못한다. 혹은 말하기를 “향해자가 이 누각에서 사초를 만든다.” 하니, 역사로 쓰는 비는 모두 옛 제왕과 현신과 은사와 및 정벌하고 전쟁하는 일이니, 고로 그 쓰인 글의 정(精)이 쌓여서 드러나는 것이다. 16)

16) <爰居念雲水樓記>, 樓臺以眺之遠爲賢, 唯沆瀣子之築皆不然. 凡兩潭江溪之側所起者, 非不皆軒乎翥也, 登之而坐, 謀于目者, 唯鏡中之勝而已. 并與其出入之路蹊而隱焉, 若無可往復者. 蓋天之設斯境, 欲使之超然于寰外, 而自成一別區也. 然造化之排鋪於物也, 不套乎純同, 必故壞其一角, 迺于雲水樓之西南見焉. 蓋其濛然而煙霧, 錯然而錦綺, 若城闕宮殿複疊而邈延, 或曰古帝王都也. 又其黛翠沓合, 若騁若伏, 摶巖鬱密巒谷, 而林岫者, 或曰隱遁有道者之居也. 又其蔓蔓若荒

운수루를 둘러싼 세계는 옛 왕의 도움이 되었다가, 도인의 거처가 되었다가, 전쟁터가 되기도 하는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모습 역시 항해가 쓴 글의 정(精)이 공간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체계는 앞서의 <표룡각기>의 그것과 일치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같은 공간이 현실 세계와 관련을 맺는 양상이다. 조물주가 통일된 체제 내에서 변주를 의도하였기에 산출된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공간을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변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묘사한 것은, 수여삼필 등에서 확인된, 통일성, 순일성을 불신하고 개별성, 가변성을 미학으로 꼽았던 그의 인식과 큰 맥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공간의 모습은 그가 묘사한 일상세계와의 모습과 차이가 난다. 예컨대 그가 숙수념에서 제일 먼저 설정한 공간인 사당의 경우 그 방향과, 방의 위치, 형태를 세분화하여 자세히 논하였고, 유가각의 경우 공간의 폐쇄성과 분열을 두드러지게 드러내었다. 이를테면 이들 공간은 모두 현실 공간에서의 질서, 규칙을 반영하는 공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위의 공간은 이러한 고정성과 폐쇄성을 부정하며, 공간의 다양한 변이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변주 가능한 공간은 때로는 그 영역을 인간의 인식 체계 밖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그는 <오노원기(吾老園記)>에서 “오노원의 밖에는 북산이 있는데 북산 밖에는 어떤 경물이 있는지 모르겠고, 어떤 경물 밖에는 또 어떤 경물이 있는지 모르겠으니 한없이 이어져 끝이 없다. 아! 도를 배우는 자가 갑자기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¹⁷⁾라고 하여 일상에서 인식가능하고, 기표화되는 세계 바깥에도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가능성에 대

衍衍若曠 叫風而逝哀 嘹鷹而逗悽者. 或曰古戰場也, 然皆不知其何地, 而不知其爲何代何人之跡也. 或曰 沆瀣子草史於是樓, 史之所書, 皆古帝王賢臣隱士若征戰之事, 故其書之精積而見也.

17) <爰居念.吾老園記>, 吾老之外, 有北山, 北山之外, 不知有何境, 何境之外, 又不知有何境. 綿綿汗汗, 無終無極. 嗚呼! 學道者, 其可以遽言知耶?

하여 역설하였다. 이러한 공간의 확장을 통해, 보이는 세계만이 존재하며 진실하다는 선입견을 버리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공간의 확장과 변주는 나아가, 물리적인 공간 개념 자체를 해체시키는 데에까지 이른다. 이는 숙수념의 중앙에 해당하는 각건당이라는 공간에서 확인된다.

향해의 집은 하늘을 지붕으로 땅을 터전으로 삼아 산을 베고 물을 들렀다. 아침저녁의 연하를 끌어 와서 문을 열든 닫든 모두 환하게 하고, 춘추의 해 그림자를 헤아려 향하거나 등지거나 모두 밝게 하였다...(중략)...이빨로 담소 하면서 터를 잡으니 토목공사 번거로울 필요 없고 붓을 휘둘러 낙성하니 일 시를 물을 것이 없네. 그 광대한 모습은, 넓디넓고 높디높아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듯, 용과 호랑이가 뛰어오르듯 봉황과 난새가 날아오르는 듯하고, 그 빼어나고 밝은 모습은 아리뭇하고 영롱하여 옥을 새기고 금을 늘어놓은 듯, 안개와 아지랑이가 사라지는 듯, 별이 빛나는 듯하다...(중략)...이 외현 한 곳은 전택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연이은 난간과 굽은 기둥은 회황이 해를 전 송하던 곳을 출입하고, 연이은 방과 나열된 집에는 하도와 낙서가 뽀뽀하게 늘어서 있다. 주인이 이 당에 거처하여 혼원을 휘파람 불며 우주를 날아다니며, 사해를 거울로 삼으니 파도가 잠잠해지고 삼뢰를 피리 부르니 온갖 구멍이 고요해진다. 숨 쉬며 침 뱉고 기침하는 소리를 현원씨와 복희씨에서 친히 듣고, 먼지, 겨 쪽정어로 요순을 만드는 것은 안기(安期)와 악전(偃佺)처럼 되기를 기약할 수 있다.¹⁸⁾

18) <爰居念.角巾堂上樑文>, 沆瀣子之宅, 蓋穹址厚, 枕嶽襟流, 挹晨夕之煙霞, 闔開俱朗, 測春秋之晷景, 嚮負咸融. ...(중략)...基甃齒之笑談, 非煩土木, 落翫毫之揮汎, 無問日時. 其廣大則, 閎閎轟轟, 括山包海, 如龍虎奮, 而鳳鸞騰, 其秀明則, 媚媚瓏瓏, 琢玉鋪金, 若霧靄消, 而星宿顯...(중략)...惟此外軒一所, 爰居全宅正中, 迤檻曲楹, 出入羲皇之賓餞, 絡房鋪室, 森羅河洛之圖書. 主人之居是堂也, 歡咏混元, 翱翔宇宙, 鏡四溟而波息, 竿三籟而竅虛. 喁于唾欬, 親聞軒·昊, 塵垢枇糠, 可期佺·期 猶且沈潛六藝之文, 爬抉百家之籍, 魚魚雅雅, 考禮樂而糾違, 戰戰兢兢, 遵規繩而戒矣. 葛衣草屨, 旣院於簪纓, 綺食珍羞, 亦均於蔬糲.

인용문에서 보듯, 각건당이라는 공간은 나무와 돌로 지은 실제의 건물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각건당은 오로지 사유와 글로 구성된, 형태가 없는 건물로, 공간 아닌 공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숙수념 내 환상 공간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 무정형의 공간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어 온갖 삼라만상을 모두 아우른다. 또 이곳은 하도와 낙서라는 우주의 원리가 내재되어있는 공간, 즉, 우주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원형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각건당의 모습은 그야말로 “우리들의 최초의 세계”이자 정녕 “하나의 우주”로서의 ‘집’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¹⁹⁾ 여기서 생활하는 홍길주의 모습은 우주를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신선의 모습에 비견된다. 이는 다른 일상공간에서의 엄격히 자기통제를 하는 사대부의 모습과는 상충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공간의 성격은 <소요관기>에서도 확인된다. 홍길주는 자신의 별관이 평범한 나무와 돌로 지어졌음에도 어느새 천지의 무궁함이 그 안에 들어서 있는 것을 포착한다. 이에 「소요유(逍遙遊)」와 실제 내용이 크게 부합하지 않는 점을 가져와 별관을 소요관이라 명한다. 이곳 역시 현실 내에 존재하면서도 우주를 포괄하는 무정형의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상 살펴보았던 일상과 비일상, 혹은 현실과 환상이라는 이질적인 공간들의 공존은 <숙수념>의 성격을 규정짓는 특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성격의 두 공간은 한 세계 안에서 공존하면서 동시에 분절되어 또 다른 틈, 즉 경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명시하지는 않지만, 틈은 숙수념의 공간을 가로지르며 존재하며,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는 비단 공간에서만 드러나는 특징은 아니다. 오거념(五車念) 에

19) 바슐라르, 광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p.139.

수록된 독서록, 서문의 경우, 경사(經史)와 역대 문인의 서적과 같이 실제 존재하는 책에 대한 글과, 운수루초사(雲水樓草史)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책들에 대한 글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들 공간 및 글은 일정한 체계 안에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나열되고 있기에 『숙수념』의 독자는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독서를 하게 된다. 이에 ‘틈’은 『숙수념』을 총괄 기획한 홍길주의 사유를 읽어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3. ‘틈’에 나타난 홍길주의 념(念)

1) 진과 허의 경계 부정

이러한 공간, 그리고 틈을 설정한 홍길주의 사유는 분명 독특한 지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상과 비일상, 현실과 환상의 공존이 진과 허의 공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숙수념을 파악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그가 직접 의미를 부여한 <진장경(眞藏經)>에서는 “허는 실의 근본이고, 실은 허의 짝이다.”²⁰⁾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 사이, 그리고 진과 허 사이의 틈은 명확한 경계로 이어지는가? <소송정기(巢松亭記)>에서 홍길주는 왕옥산의 경치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논하면서 글을 맺는다. 그의 답은 “있지는 않으나, 객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²¹⁾라는 것으로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진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나 이는 결국 그 세계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파악될 수는 없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홍길주의 이러한 역설은 <태허부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반복된다.

20) <居業念眞藏經> 虛, 實之祖, 實, 虛之待

21) <爰居念.巢松亭記> 或曰“王屋無此境, 客妄也.” 曰“王屋固無此境, 客亦非妄也.”

그렇지만 이것이 허무하게 끊어진 산록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곳에 신선의 누각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나무꾼이 환상에 미혹되고 눈에 현혹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호사자가 인연이 없어 신선이 도망갔다고 말할 수도 없다. 본래는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본래 없다가 잠깐 생겨났다고 말할 수도 없다....(중략)...신기한 곳을 노니는 꿈을 꾸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러한 곳에 **眞**이 있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眞**이 없다고 말해서도 안된다.²²⁾

여기에서도 그는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선계의 이야기를 들며, 그 실존 여부에 대한 판별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있음과 없음의 **眞(眞)**과 **허(虛)**의 의미를 왔다 갔다 하기에 홍길주의 가상공간은 더욱 모호하고 난해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망설임, 주저함은 <숙수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혹자가 말하길, “어릴 적에 별장과 기이한 승경을 설정을 해놓고 ‘숙수념’이라고 말하였으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해 다른 사람을 기다린 것이었다. 작은 틈을 가리켜 ‘이곳으로 들어가면 그곳을 만날 수 있다’고 했지만, 허무하고 어두운 곳에 있으니 반드시 그런 곳을 만날 수가 없지. 어린 아이의 지령(至靈)함으로 말을 근거 없이 발설하지는 않았을 테니, 이는 아마도 참언(讖言)이었나보네.”라고 하였다. 항해자는 발끈하며 말하길, “자네는 진정 내가 이 생각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대는 어찌 숙(孰)이 숙(夙)이 아니라고 확신하는가? 또 어찌 작은 틈에 끝내 들어갈 수 없다고 확신하는가?... (중략)...그대는 과연 믿지 못하겠으면 나랑 한번 함께 한군데에 가보세.”하고 마침내 그의 팔을 잡아끌고 작은 틈으로 들어갔는데, 길이

22) <爰居念太虛府記>, 謂是非荒荒然斷麓不可 謂是無仙人樓闕不可, 謂樵之人迷於幻眩於眼不可, 謂好事者無緣而仙避之不可, 謂之本有而災無不可, 謂之本無而暫有不可.... 人有夢游異境者, 謂是境有其眞不可, 謂無其眞不可.

열리면서 밝아졌다...(중략)...항해자가 묻기를 “어떠한가?”하자 그 사람이 말하길 “내가 이제야 비로소 말을 함부로 발설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네.”라고 하였다. 항해자가 “말이 맞지 않는 것은 마음과 지각이 밝지 못해서라네. 태청(太淸) 선인(仙人)이 푸른 얼굴의 鬼卒을 보내어 그대의 혀를 뽑고 그대의 심장을 도려내어 씻으려 할 걸세.” 말이 미처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천지가 어두워지며 백주가 칠흑같이 되고 뇌성벽력 소리가 산곡을 진동하더니 귀졸 십여 인이 도끼를 잡고 검을 뽑아 곧바로 그 사람을 쫓았다. 그 사람이 급히 소리를 지르고 벌떡 일어났다. 항해자도 벌떡 일어났다. 한참 동안 바보같이 있다가 눈을 비비고 말없이 자세히 보았다. 항해자는 지구세계 남섬부주 조선국 한양성 중남부 훈도방 죽전동의 작은집 사랑방 북쪽 창가에서 자다 일어났고, 그 사람은 지구세계 남섬부주 조선국 한양성 중남부 훈도방 죽전동의 작은집 사랑방 남쪽 창가에서 자다 일어났다...(중략)...그 사람이 놀란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크게 웃으며 말하길 “내 이제야 알겠네. 숙수념(孰遂念)도 아니고 숙수념(夙遂念)도 아니고 숙수념(孰睡念)이라는 것을” 항해자도 크게 웃었다. 아. 이것이 과연 꿈이고 진(眞)이 아니었던가? 아 누가 이 꿈을 진(眞)이 되기 해줄 수 있는가? 누가 나의 꿈을 이룰 수 있겠는가? 누가 나의 꿈을 이룰 수 있겠는가?²³⁾

23) <孰遂念>, 或曰, “兒時設別墅奇勝而名之曰 孰遂念, 有是念而莫之遂, 以待他人也. 持小陳曰, 由此入其境, 在虛無暗昧之中, 而必不可得也. 小兒至靈, 言不虛發, 是殆識乎!” 沆瀣子奮然曰, “子眞以吾爲不能遂此念耶? 子惡知孰之非夙, 又惡知小陳之終不可入耶?... (중략)...子果不信, 試與我偕往一所可乎?” 遂挈其腕入于小陳, 豁然而通明...(중략)...沆瀣子曰, “何如?” 其人曰, “吾于今始覺言之不可以輕發也.” 沆瀣子曰, “言之不中, 繇心知之不明也. 太淸仙人將遣青面鬼卒 拔爾舌而易之, 剗爾心而滌之.” 語未竟, 忽天地晦冥, 白晝如漆, 雷聲霹靂, 聲震山谷, 有鬼卒十餘人, 執斧挺劍, 直奔其人, 其人疾聲大號, 蹶然而起, 沆瀣子亦蹶然而起, 良久如痴, 拭目而熟視無言. 蓋沆瀣子, 從地毯世界南瞻部洲朝鮮國漢陽城中南部薰陶坊竹塵衢之小第斜廊房北隔下睡起, 其人, 從地毯世界南瞻部洲朝鮮國漢陽城中南部薰陶坊竹塵衢之小第斜廊房南隔下睡起也...(중략)...其人驚魂才定, 大笑曰, “吾乃今知之矣, 非孰遂念, 亦非夙遂念, 乃孰睡念也.” 沆瀣子亦大笑, 嗚呼, 是果夢而非眞耶? 嗚呼, 孰能使是夢而爲眞耶? 嗚呼, 孰能遂吾之念耶? 孰能遂吾之念耶?

일상 질서 체계 내에 살고 있는 이에게는, 정해진 틀이 없거나 기표화 되기 어려운 공간은 현실과 연속되지 않는, 그야말로 허구로 느껴질 뿐이다. 인용문에서의 흑자 역시 홍길주가 말한 '숙수념', 즉 틈 안 공간을 '허무하고 어두운 곳'으로 실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홍길주가 그를 이끌고 경계를 넘어 직접 그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무너지게 된다. 홍길주가 이때까지 배치한 여러 공간들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흑자는 숙수념의 세계가 허구가 아니라, 진실임을 인정한다. 여기서 숙수념의 공간은 허(虛)에서 진(眞)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갑자기 하늘이 칠흑같이 변하고 번개가 치더니, 귀졸들이 나타나 흑자를 쫓는다. 홍길주 역시 이러한 사항에서 깜짝 놀라며 어쩔 줄을 모르다가,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흑자와 함께 사랑방에 누워 잠들었던 자신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급작스런 결말, 단순히 앞에 사건 전체가 꿈에 불과했음을 보여줌으로써 사태는 갑자기 역전되는 것이다. 이에 흑자는 숙수념이 진(眞)이 아닌 허(虛)라고 다시 의견을 수정하면서 자신의 원래 입장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 이루어줄 생각”이란 숙수념의 뜻은 “누군가 졸면서 생각한 것”으로 의미가 변모되면서, 결국 그 세계가 꿈에 불과한 것으로 종료된다. 이러한 결말은 결국 홍길주가 틈에서 나와 버림으로써 숙수념 세계를 꿈이라는 영역으로 은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실제로 이러한 꿈과 깬의 모티프는 숙수념 뿐 아니라 홍길주의 다른 산문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홍길주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도 여전히 “아 누가 이 꿈을 진(眞)이 되기 해줄 수 있는가?”라고 탄식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결국 모든 것이 꿈이자 허(虛)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자기 입장-내 생각은 누군가가 언젠가

이루어줄 수 있다'를 철회하고 있지는 않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홍길주의 입장은 독자로 하여금, 숙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주저함, 판단의 번복은 앞서 진과 허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였던 그의 의문과 상통하고 있다. 이에 홍길주가 아주 틈 밖으로 나와서 현실로 완전히 귀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있음과 없음 그리고 실재와 비 실재 사이에서 여전히 떠돌면서, 틈 안 공간에 대한 지각을 담지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숙수님의 '念'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해석도 다양해질 수 있다. 기존 연구가 합일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에 기인한 것이다. 본고는 그중에서도 '틈'이 숙수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틈' 개념에 드러난 홍길주의 사유가 숙수님의 '念'의 성격과 긴밀한 역할을 맺고 있다고 본다. 남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틈'을 파악한 홍길주는, 진과 허와의 경계를 분명하게 긋지 않으며, 나아가 허가 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숙수님 전반을 관류하고 있다.

2) 조선후기 '틈, 사이'에 대한 사유와 관련하여

이러한 '틈, 사이' 개념은 비단 홍길주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조선 후기 문사들의 글에서 이러한 용어는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특히 박지원과, 박제가의 경우에 이 개념이 그들 사유와 문학론에서 중요한 지점을 형성하고 있음이 기존 연구에서 이미 밝혀져 왔다. 이에 이들 문사들에서의 '틈, 사이' 개념이 어떻게 변주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작업은 이 시기 사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리라 기대한다. 최근 박수필²⁴⁾이 논했듯, 홍길주의 <청부정기> 등에서의 나타난 사이 개념은, 연암의 그것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이 분명 발견된다.

“딸아이와 떠느리 둘 다 이리 오너라. 무릇 이라는 벌레는 살이 아니면 생기지 않고, 옷이 아니면 붙어 있지 못한다. 그래서 두 말이 다 옳은 것이니라. 그러나 장롱 속에 있는 옷에도 이가 있고, 너희들이 옷을 벗고 있다 해도 오히려 가려울 때가 있을 것이다. 땀 기운이 무럭무럭 나고 옷에 먹인 풀 기운이 푹푹 찌는 가운데 떨어져 있지도 않고 붙어 있지도 않은, 옷과 살의 중간에서 이가 생기느니라.” 하였다.

백호 임제가 말을 타려고 하자 종놈이 나서며 말하기를, “나오리께서 취하셨군요. 한쪽에는 가죽신을 신고, 다른 한쪽에는 짚신을 신으셨으니.” 하니, 백호가 꾸짖으며 “길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짚신을 신었다 할 것이고, 길 왼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가죽신을 신었다 할 것이니, 내가 뭘 걱정하겠느냐.”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논할 것 같으면, 천하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발만 한 것이 없는데도 보는 방향이 다르면 그 사람이 짚신을 신었는지 가죽신을 신었는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참되고 올바른 식견은 진실로 옳다고 여기는 것과 그르다고 여기는 것의 중간에 있다. 예를 들어 땀에서 이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은미하여 살피기 어렵기는 하지만, 옷과 살 사이에 본디 그 공간이 있는 것이다. 떨어져 있지도 않고 붙어 있지도 않으며,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라 할 것이니, 누가 그 ‘중간[中]’을 알 수가 있겠는가.

말뚝구리는 자신의 말뚝을 아끼고 여룡(驪龍)의 구슬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여룡 또한 자신에게 구슬이 있다 하여 ‘말뚝구리의 말뚝[蝨丸]’을 비웃지 않는다.²⁵⁾

24) 박수밀, 「18세기 '사이(間)'의 미학과 그 의미」, 어문연구 32, 2004.

25) <燕巖集, 蝨丸集序> 女與婦來, 夫蝨非肌不化, 非衣不傳, 故兩言皆是也, 雖然, 衣在籠中, 亦有蝨焉. 使汝裸裎, 猶將癢焉, 汗氣蒸蒸, 糊氣蟲蟲, 不離不襯衣膚之間. 林白湖將乘馬, 僕夫進曰, 夫子醉矣, 隻履鞞鞋. 白湖叱曰, 由道而右者, 謂我履鞞, 由道而左者, 謂我履鞋, 我何病哉. 由是論之, 天下之易見者莫如足, 而所見者不同, 則鞞鞋難辨矣, 故真正之見, 固在於是非之中, 如汗之化蝨, 至微而難審, 衣膚之間, 自有其空, 不離不襯, 不右不左, 孰得其中? 蝨丸自愛滾丸, 不羨驪龍之珠, 驪龍亦不以其珠, 笑彼蝨丸

<낭환집서(娘丸集序)>에서 연암은 황희와 임제의 고시를 인용하여 ‘是’ 혹은 ‘非’라는 극단적인 인식의 한계의 극복하고자 ‘사이(間), 중간(中)’이라는 개념을 가져온다. 올바른 식견은, 옳고 그름 이라는 판단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대립항의 지양은 다원적 가치의 인정으로 이어진다.²⁶⁾ 이에 모든 만물에 도가 존재되어 있다는 관점 또한 산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혹은 도는 실상 획득하기 어려운 ‘은미한’ 것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도강록(渡江錄)>에서 “도는 알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며 “물이 언덕에 제(際)한데서 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산(子産)과 같이 득도한 자가 아니면 이를 파악하기는 힘든 것이다.²⁷⁾ 이에 제(際), 간(間), 중(中)은 대립항을 지양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의미를 지니면서도, 동시에 지극히 은미한 도의 특질을 함께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심도 있는 사유를 통해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숙수념에 나타난 홍길주의 시각과 많은 부분 유사한 지점을 지닌다고 하겠다. 홍길주에게서도 인식의 문제는 중요한 화두이다. 이미 확인했던 바 <오노원기>, <청부정기> 등의 글에서 우리가 인식 너머의 공간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으며, <삼외헌기(三籟軒記)>에서는 전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 대상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홍길주 역시 인식의 한계를 자각하고 그 편폭을 넓힐 것을 주장한 것이다.

26)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박지원의 산문시학, 돌베개, 1999, p.354.

27) <燕巖集, 渡江錄>, 余謂洪君命福 首譯曰, 君知道乎? 洪拱曰, 惡, 是何言也. 余曰, 道不難知, 惟在彼岸. 洪曰, 所謂誕先登岸耶? 余曰, 非此之謂也, 此江乃彼我交界處也, 非岸則水. 凡天下民彝物則, 如水之際岸, 道不他求, 卽在其際. 洪曰, 敢問何謂也. 余曰, 人心惟危, 道心惟微, 泰西人辨幾何一畫, 以一線論之, 不足以盡其微, 則曰有光無光之際, 乃佛氏臨之曰, 不卽不離, 故善處其際, 惟知道者能之, 鄭之子産.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과 함께 홍길주의 '틈' 개념은, 세부적으로 고찰해 본다면 박지원의 그것과 변별되는 지점이 있다. 우선은 공간 개념이 가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연암의 사이, 중간 개념이 是非, 左右가 만나는 은미한 지점을 뜻한다면, <청부정기>에서의 '際'는 존재하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부여된다. 홍길주가 틈이라는 개념 안에 다양한 공간을 창출시킬 수 있던 것은 이러한 인식체계에서 비롯한다. 더 중요한 것은 홍길주가 틈과 함께 진과 허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존재하는 세계의 전일성, 관점에 대한 불신이 박지원의 시대보다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홍길주의 문장에서 박지원에서 발견된 역설과 비약이 더욱 확대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할 것이다.

이미 기존 연구에서 논했듯²⁸⁾, 이러한 기존의 인식체계에 대한 불신과 재고 요청은 조선후기 문사들의 사유구조의 중요한 부분이라 짐작한다. 홍길주의 이러한 틈과, 진과 허에 대한 역설 또한, 19세기에 견고화되던 이데올로기 틈 사이에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 내었으며 열린 세계관으로 향하는”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진과 허 사이에서 끊임없이 망설이고, 주저하였던 홍길주의 사유가 과연 연암의 시대에서 한발 더 나아갔는지는 좀 더 심도 있는 고찰이 요청된다. 아울러 홍길주 시대 이후 '틈, 사이'에 대한 분석이 추가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분명해 지리라 기대한다. 이는 추후 과제로 미뤄둔다.

4. 결론

이상 숙수념에 나타난 틈과 공간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선행

28) 박수필, 위의 논문, p.256.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숙수념의 공간은 사대부가 소망하는 이상적 세계 형상에 근접하다. 그러나 일상의 영역을 넘어서는 공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같은 의미망 아래에 묶이지 않아 그에 대한 해석을 유보하게 한다.

본고는 숙수념에서 반복되는 '틈'의 이미지를 주목하여, 이를 통해 숙수념 공간의 특질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숙수념을 기획한 홍길주의 념을 대한 독해를 시도하였다. 일상 공간의 경우, 현실적인 가치를 재현하고, 치인예의 욕망이 반영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환상 공간의 경우는 일상의 규범이 해체되며, 홍길주의 사유가 형상화되어, 무한한 변주와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홍길주는 이 두 가지 상이한 공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무엇이 진실인지, 또 무엇이 허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간극을 사이로 공존하는 현실과 꿈, 진과 허의 모습은, 숙수념이 그리고 홍길주의 사유가 가지는 주요한 국면이자 매력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홍길주, 『執遂念』, 연세대 소장.

김명호, 「박규수의 <執遂念行>에 대하여」, 한국한문학회연구40집, 2007, pp.315-337.

김철범, 「홍길주 <숙수념>의 세계」, 『열상고전연구회』 17, 2003, pp.35-59.

박무영, 「숙수념의 공간 설계와 문학적 사유」, 『동방한문학』 33집, 2007, pp.562-613.

박수밀, 「18세기 '사이(間)'의 미학과 그 의미」, 어문연구 32, 2004, pp.237-260.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pp.1-383.

안대회, 「18, 19세기의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 진단학보, 97, 2004, pp.111-138.

최식, 「홍길주의 복거와 숙수념」, 『東方漢文學』 28, 2005, pp.187-365.

최원경, 「숙수념 그 공간의 미학」, 『한문학보』 11집, 2004, pp.413-430.

비슬라르, 광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pp.1-398.

ABSTRACT

The crack in the space of Suk-Su-Nyeom and Hong, Gil-Ju's idea

Ha, Ji-Young

The space of Suk-Su-Nyeom, which is designed by Hong, Gil-Ju, is not arranged systemically. Basically, adhesion to the reality is very fluid according to the individual space. The concepts, so called "crack", "space", "shadow", which separate heterogeneous space are frequently appeared in Hong's thinking. These concepts, which are originally worked out by Hong, play an important role as the operating principle of the whole space of Suk-Su-Nyeom.

While our daily life space is reflecting a fool's desire, in a fantasy, a norm is totally dismantled. In addition, Hong's thinking is figured as symbolic figures, and extended within that fantastic spac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speculates the characteristic of Suk-Su-Nyeom is coexistence of disparate spaces such as between daily life and the counterpart concept, unusual life or between reality and fantasy.

These totally different spaces not only exist together within one world called Suk-Su-Nyeom, but also respectively have its own borderline called crack. Even though Hong did not clearly stated, "crack" existed, crossing the space of Suk-Su-Nyeom, and being constantly reproduced itself. Hong's idea revealed through this concept that "crack" is closely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 of ideas in the world of Suk-Su-Nyeom. Hong, who has recognized the concept of "crack", which has never been discovered by other ordinary people, does not try to draw a borderline between the reality and the fiction clearly. In addition, he suggests there's a possibility that a fiction could become a reality.

Hong's new concept, "crack" and his emphasis on reality and fiction cracks the ideology solidified during the 19th century. Moreover, this kind of thought proceeds toward the new outlook on the world.

Key Words *Hong Gil-Ju, Suk-Su-Nyeom*, crack, fantasy, 19th century

논문투고일 : 2008. 3. 30
심사완료일 : 2008. 4. 20
게재확정일 : 2008. 5. 4